

# 새해엔 발원 · 기도 생활화로 참불자의 삶을...

2009년 새해가 밝았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신년계획은 세웠나?"는 인사만큼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사람들이 많다. 금융권과 실물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모진 시련에 모두가 고통스러울 때, 현실 타개를 위해 신년계획에 특단(?)의 조치를 담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눈길을 끄는 요즘이다.

주머니 살림이 쪼들리는 가정들은 씀씀이부터 줄이는 계획을 짤다. 배울 것이 많은 학생은 잠 없이 공부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술·담배가 없으면 하루나 기가 힘들었던 이들은 금주·금연을 다짐하기도 한다.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一切唯心造)'며 저마다 성공을 자신하지만 정작 번덕스런 내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할지 안살림에 신경 쓰는 사람은 드물다. 더욱이 나라 인력의 어려움에 개인은 고통 받고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애만 태우는 경우도 많다.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에 괴로운 사람, 해마다 신년 계획을 세웠더니, 매년 작심삼일로 흐지부지 됐던 사람이라면 올해는 발원과 기도로 '마음'부터 다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

## #불자라면 반드시 '원' 세우야

발원은 스스로 어떤 원을 세우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한 원을 맹세하는 것을 서원(誓願)이라 한다. 서원을 글로 표현한 것이 발원문이다. 발원문에는 자신의 원을 실천하겠다는 맹세가 담겨있다. 원을 정하고 난 뒤에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을 원력(願力)이라 부른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이루겠다는 발원이 있었기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이 <능엄경>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발원에 여러의 도를 붙들고 중생으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라"고 말했다는 정도로 발원을 강조했다.

불자는 원력으로 산다. 사홍서원 같은 공통의 원(總願)은 물론이고, 지옥 중생 모두를 구제하기 전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원이나 중생의 모든 병을 낫게 하겠다는 약사여래의 12대원, 아미타불의 48대원, 보현보살의 10대원 등 불보살은 누구나 각자의 원(別願)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행을 한다.

원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립적 삶이 아닌 이타적 삶이다. 건강이나 사업번창, 학업 성취 등 개인적인 복을 빌기보다는 장기적·대승적인 바람이 원으로 바람직한 이유가 여기 있다. 자신의 원이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사홍서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발원이 된다. 마음 속에 원을 일으킨다고 해서 발원심(發願心), 가장 높은 원을 세운다고 해서 발무상원(發無上願), 가장 큰 원을 일으킨다고 해서 발대원(發大願)이라 부르는 까닭이다.

불교는 구원보다는 자발적 수행에 의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다. 때문에 발원은 더 없이 중요하다.

불자라면 부처님께 복을 비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발원이 있어야 한다. 불자인 당신의 원은 무엇입니까?

## #'의지' 담겨야 좋은 발원문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가 있어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별도로 발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기원이 바라는데 그치는 것에 비해 발원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기도에 큰 힘을 준다.

관음기도를 매일 3년째 하고 있는 여여심 보살(47)은 "자신의 의지를 글로 적은 발원문을 매일매일 소리 내 읽다보면 나태해지려는 자신을 경계해 기도에 매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많은 불자들이 발원문 작성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발원문에는 아무 형식이 없다. 반드시 적어야 할 것도 없고, 적지 말아야 할 내용도 없다. 특별한 형식이 자신이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허물없이 부처님께 고한다는 생각으로 간절하고 지극하게 적으면 그 뿐이다.

다만 발원문은 (부처님에게)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해 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 #기도에 필요한 것은 '간절함'과 '믿음'

기도는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기원하는 행위다. 말 그대로 빈다는 뜻이다. 죄업이 두렵고 복덕이 없는 까닭에 중생이 하는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적한 일타 스님(前 조계종 원로의원)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만큼 업을 녹일 수 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꼭 이뤄야겠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라며 "부처님이나 큰 힘을 지닌 보살님이 세운 행원력(行願力), '고통받는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행원력에 의지해 간절히 소원을 비는 기도법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도를 하면 불보살의 가피를 입는다. 기도는 수행방법 가운데 직접적으로 불보살 가피력에 의해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다. 수행으로서 기도는 외부의 대상에게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닌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원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한 자기다짐이다. 하지만 초심자들은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불보살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기도는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증진시켜 고난, 장애 등을 벗어나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룬다. 가피는 중생이 겪는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는 불보살의 본원적 덕분이다. 다 시금 발원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 있다.

<아미타경> <지장경> 등 경전에는 불보살의 서원이 있고, 그 공덕으로 중생은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기도에 있어 고통에서 벗어나



지극한 마음으로 '상구보리 하회증생'을 발원하는 불자들.

## 발원 -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와 실천 있어야

## 기도 - 참회는 필수 · 의타심 버리고 꾸준히 해야

겠다는 간절함만큼이나 불보살님 위신력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는 이유다.

믿음은 왜 중요할까? 믿는 동시에 마음의 위안을 얻어 안심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는 동시에 삶이 바뀐다. 지장기도에 열심인 대원화 보살(52세)은 "기도에 열중하다보면 일체 번뇌가 사라지고 산만하고 불안하던 마음이 안정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부처님 자비는 우주에 충만해 있다. 하지만 중생들은 그 자비를 받아들일 방법을 모른다. 기도는 마치 텔레비전 안테나처럼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 자비를 받아들이는 행위다. 간절함과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바라는 것을 얻는다.

불보살은 어떻게 가피를 줄까? 가피를 입은 사례들을 유형별로 나누면 △현실에서 바로 가피를 입어 소원이 성취되는 현증가피(顯證加被) △꿈을 통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시받는 몽중가피(夢中加被) △인제나 은근하게 보호받는 명중가피(冥勳加被)로 나뉜다.

## #어떤 기도할지 '인연' 따라

대개 다급한 일을 당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는 현증가피 또는 몽중가피를 입는 경우가 많고, 평소 안락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명중가피를 입는 경우가 많다. 불보살의 원력만큼 기도의 대상 또한 다양하다.

석가모니불 기도는 불자로서 밝은 지혜를 이루겠다는 성취를 담아 일반적으로 석가모니불 원력에 의지한 기도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쌍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을 염하고 '석가모니불'을 계속 부르며 정근한다.

관음보살 기도는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도 중의 하나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살피는 관세음보살 원력에 의지한 기도로 '나무 보현시현 원력홍심 대자대비 구구구구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한다.

지장보살 기도는 모든 중생 구제를 서원한 지장보살 원력에 의지한 기도다. 죽은 조상의 넋을 천도하고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자 할 때 하는 경우가 많다. '나무 남방화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후 '지장보살'을 부르며 정근한다.

아미타불 기도는 극락세계를 이룬 아미타불 서원에 의지한 기도다. 극락왕생 등을 발원할 때 하며 '나무 서방구주 아미타불' 염불 후 '아미타불' 정근을 한다.

신중 기도는 부처님 정법을 수호하고 사찰을 지킬

것을 서원한 신중에 하는 기도다. 힘과 용기로 환난과 두려움을 막아주는 까닭에 기도를 하는 이들이 많다. '화엄성중'을 염송한다.

이 외에도 아미타 기도처럼 개인기복보다 수행에 치중한 기도법도 있다.

아미타 기도는 중국 당대(唐代)의 총림 수행법을 성취 스님이 소개한 기도법이다. 스님은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악업은 과거 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지어온 업장의 과보"라며 업장을 참회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도록 '예불대참회(108배)'와 새로 음역한 '능엄주'를 권했다.

아미타 기도 순서는 먼저 <예불참회문>에 맞춰 108배를 하고, 두 손을 합장한 자세에서 무릎을 바닥에 붙여 세우고 허리를 바르고 깨끗하게 세우는 장계 합장을 하고 '옴 아미라 흠 캄 스바하'라는 비로자나 법신진언을 30분간 독송한다. 그리고 '대불정능엄신주'와 '능엄주' 화랑계를 독송하는 방법이다. 지금도 해인사 백련암에서는 아미타 기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성철 스님은 "아미타 기도를 1년에 네 번 정도 하라"고 말했다.

## # '참회' 있어야 옳은 기도

기도는 귀의와 공양 예경 참회 염송 회향 순으로 진행된다.

불보살에게 지성으로 귀의하는 것이 첫 순서다. 공양을 올릴 때는 꽃, 과일, 쌀 등을 올리기도 하지만 대개 향과 차, 혹은 향단을 올리기도 한다.

예경은 불보살에게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3배 108배 1080배 3000배 등을 정해 예배를 올리고 <반야심경> <천수경> 등 경전을 읽는다.

참회는 자신의 고통이 남이 아닌 자신에서 비롯됐음을 바로 아는 것이다. 참회가 있어야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성취할 수 있다.

염송은 불보살 명호를 부르며 정근하는 것으로 108번이나 1000번, 3000번 염송한다.

끝으로 발원문을 읽고 사홍서원과 3배를 올려 기도를 마친다.

## #기도의 극치 '깨달음'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한다. 기도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절로 상구보리(上求菩提)하게 된다.

기도에 열중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계속된 삼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기 때문. 결국 기도의 끝은 소원성취를 초월한 깨달음이다. 이를 두고 일타 스님은 "기도해 힘 드는 것도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고비를 넘기고 나면 묘력을 얻는다"며 "꿈 속에서도 기도가 이뤄지고 일념삼매에 젖어들면 깨달음의 문이 저절로 열린다"고 말했다.

불자라면 기도를 통한 소원성취와 깨달음이 가족과 이웃을 도우며 하회증생(下化衆生)하라는 불보살의 가르침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조동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 해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해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관육	17 지장불공	33 아침저녁중성
2 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4 향수해례예불
3 상용영반	19 종사관육	35 혼자서 하는 민관육(간단한 관육)
4 회심곡(화청)1	20 종사영반	36 생일불공
5 회심곡(화청)2	21 가사영반의식	37 상주권공48제의식 1
6 구병시식	22 신중작법39위	38 상주권공48제의식 2
7 관음시식	23 간단한 신중작업	39 상주권공48제의식 3
8 점안의식	24 전통조석예불	40 상주권공48제의식 4
9 방생의식	25 천수경/장엄염불	41 제사불공
10 사물 다루는 법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2 삼신이운
11 안택	27 사시상단불공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12 시다림	28 작법무(복청계천수)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13 산신불공	29 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계)	45 화엄시식
14 미타불공	30 작법무(육건만다라선송다계작법)	46 약사여래불공
15 신중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7 교재 2권 100,000원
16 관음불공	32 삼보통칭	

제1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교육을 2009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제품 구입처: 중무소 ☎ 062)362-8604 / 해공스님 011-624-8604

##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학장 해공스님

## 진정한 스승님처럼 기소와 범패신동의를 교육할 줄 아는 교육 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9년 제1기 신입생 및 통학생 모집

-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배비 : 각종불공의식, 49제의식, 천도제, 신중작법의식, 각종소, 낭독하는 법 - 결재비 : 바라춤, 도량계작법, 다계작법(나비춤), 사물 다루는 법, 화청(회심곡)
- ◆ 과 정 : 2년(4학기) / 1,2학년 수업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주 1회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학교에 비치), 방명판만 사진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 입 학 식 : 2009년 3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음, 2월 16일)
- ◆ 통학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토요일 12시까지
- ◆ 각배영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2동 759-14 (우 502-242)
- ◆ 학 장 : 해공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 ◆ 계좌번호 : 농 협 641010-56-000296 (예금주:노연숙)

## 한국불교의식대학 범패교육 (2009년 1월 5일 ~ 1월 9일 4박 5일)

-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오전시간:경의,오후시간:실기교육위주)
- 1월 5일 오후 2시 : 입회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육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야계교육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 1월 6일 오전 9시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깃소리늬늬), 화청(회심곡), 낭성시하는 법, 범종불사 의식하는 법
- 1월 7일 오전 9시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상충하는 법, 창홍의식하는 법, 부도 제막식하는 법, 삼재기도하는 법, 예수제불사 특별교육
- 1월 8일 오전 9시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법,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육, 큰불사시 관음 예문 하는 법
- 1월 9일 오전 9시 : 총정리 및 예수제 불사교육
- ◆ 준 비 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 일반불자 - 평상시 복장, 필기도구
- ※ 바라춤, 나비춤, 회심곡 화원 수시모집